

卽身成佛의 大道 - 密敎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총지종보

자녀들의 모든 언행 내가지은
과보이니 바른자녀 바라거든
내가 먼저 모범되라

- 종조법설집 -

제 4 호

등록번호 마-2360호
등록일자 1995. 8. 29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우) 135-082

발행인 안중호
편집인 이종석
인쇄인 김규석

대표전화 (02)552-1080
발행인실 (02)562-8823
편집국 (02)508-8933
광고신청 (02)552-1081
구독신청 (02)552-1083
팩스 (02)552-1082

주요 기사

- 1면 · 부처님 오신날
- 2면 · 총지대학개원
- 3면 · 봉축사·대승보살
- 4면 · 다중교사회의 불교
- 5면 · 밀교의 역사
- 6면 · 신행일기·이런불자
- 7면 · 성지순례
- 8면 · 예인을 찾아

하반기 49일 불공양내

기간 : 5.28(화)~7.15(월)

서원사항

- 총지종교세발전
- 부국강병국태민안
- 조국평화통일
- 일체교도가정제재난
- 일체교도가정 소구역의
- 일체교도 오세대 제도
- 재난불생 산업발전
- 사문정밀 국운융창
- 전당건설 불사 원만

성불을 기원하는 등을 켜자

부처님 오신 뜻을 오늘에 살려야 연등축제 통일기원 등 행사다채

오는 24일은 부처님오신날이다.

이날 총지종 소속 37개 사원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는 오전에 봉축법요식을 거행하고, 오후에는 점등식을 한다. 총지사에서는 오전 10시 서원당에서 법공 통리원장, 효강법장원장, 원봉총무부장 등을 비롯한 전교도들이 부처님 오심을 축하하는 법요식을 갖는다. 이날 통리원장은 설법에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을 불자들이 바로 알고, 이날을 뜻깊게 보내야 한다'며 '개인적 욕심을 비는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성불을 기원하는 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그리고 범종단적 봉축행사인 연등축제가 지난 19일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렸다. 봉축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4만여 불자가 동참했다. 고려시대의 연등회의를 계승해 범국민축제로 승화된 연등축제는 식전행사 법요식 연등행진 거리축제 회향식 등의 프로그램으로 짜여졌다. 식전행사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와 김성녀등 국악인들의 공연이 있었고, 이어 법요식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월주스님의 인사말이 있었다. 인사말에서 스님은 "모든 종단이 함께하는 범국민적 행사인 연등축제는 불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불타의 가르침을 일깨우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담아내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연등행렬이 동대문운동장에서 시작해 종로 주요공원 탐골공원 등을 지나 종착지인 보신각사거리에서 회향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끝마쳤다. 거리축제는 예년에는 없었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흥을 돋우기 위해 기획돼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 본종단에서는 북한주민과 부처님오신날을 더불어 기뻐하고, 남북



북한땅이 바라보는 강원도 00사단에서의 점등식 광경.

평화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지난 14 거행했다. 교도 2백여명과 칠성부대 이날 행사에서 7사단장은 본종의 통일 화천군 칠성전망대에서 점등식을 원 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된 일례에 대한 의지를 치하했다.

총지 불교대학 개원

지난 4월 23일, 2백여 중도 참석하에

본 종 총지불교대학 개원 축하법회가 지난 4월 23일 오후 2시 총본산 총지사 서원당에서 성료하였다. 이날 법회는 제47회 춘계강공회 개강식을 겸하여 개최되었으며 전국 스승 및 교도대표, 종무원 등 2백여 명의종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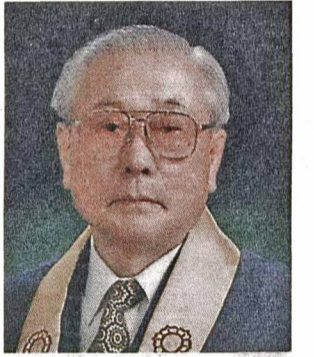
진행되었다. 법회는 총무부장 원봉 대장사의 집공과 사무국장 지성 대법사의 사 회로 진행되었는데 대비로자나불 호 념을 시작으로 특정 종령님의 헌화 및 훈장정공,참회가 오대서원가 육자 명외계법과 개강사, 법어, 개원 축하인

사와 반야심경을 끝으로 폐회되었다. 법공 통리원장은 개강사에서 "능 동적인 교화와 신생활동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앞으로 불교계에서 우리 종단이 큰 역할을 담당함은 물론 중생교화에도 남다른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기 혁신이 필

요하며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효강 중앙교육원장(법장원장 및 불교대학장 겸임)은 개원축하인사에서 "역사적으로 교육대도가 제대로 되어있지 못한 나라들은 결국 도태되고있는 것을 보았다"며 "교육을 통해서 만이 자기개발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고 "불교대 학의 발전과 우리 모두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정진"을 촉구하였다. 그간 종단에서는 대학 설립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다. 자료수집과 해를 통해 기본 골격을 정한뒤 여러 차례의 자료검토와 수정과정을 거쳐 지난 3월경에 최종안을 보게 되었다. (관련기사 2면)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종령법어



宗領 祿靜

지혜와 자비의 등불로 무명의 장막을 걸어내자

지혜와 자비의 화신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계에 나투시어 진리의 길을 밝히신지 2540년 장구한 세월이 흘렀으나 어리석은 중생들의 탐진치는 날로 치성하고 끝없는 미망에서 벗어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속 깊이 새기지 않고 따르지 아니한 죄업이라 하겠습니까.

부처님의 삶은 오늘의 우리에게 더욱 큰 가르침으로 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살정신이 이 시대에 발휘되어야 할 가장 으뜸되는 불교 정신이며 가르침입니다. 보살정신의 결여가 시기 질투 반목과 이기심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불모출생경에 이르시기를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배우고 닦는 자는 번잡하고 탐염심을 내지 말며, 의심하고 미혹된 마음을 내지 말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내지 말며, 아끼고 인색한 마음을 내지 말고, 계행을 파할 생각을 일으키지 말며, 성내고 뇌란(攪亂)한 마음을 내지 말고, 게으른 마음을 내지 말며, 산란한 마음을 내지 말고,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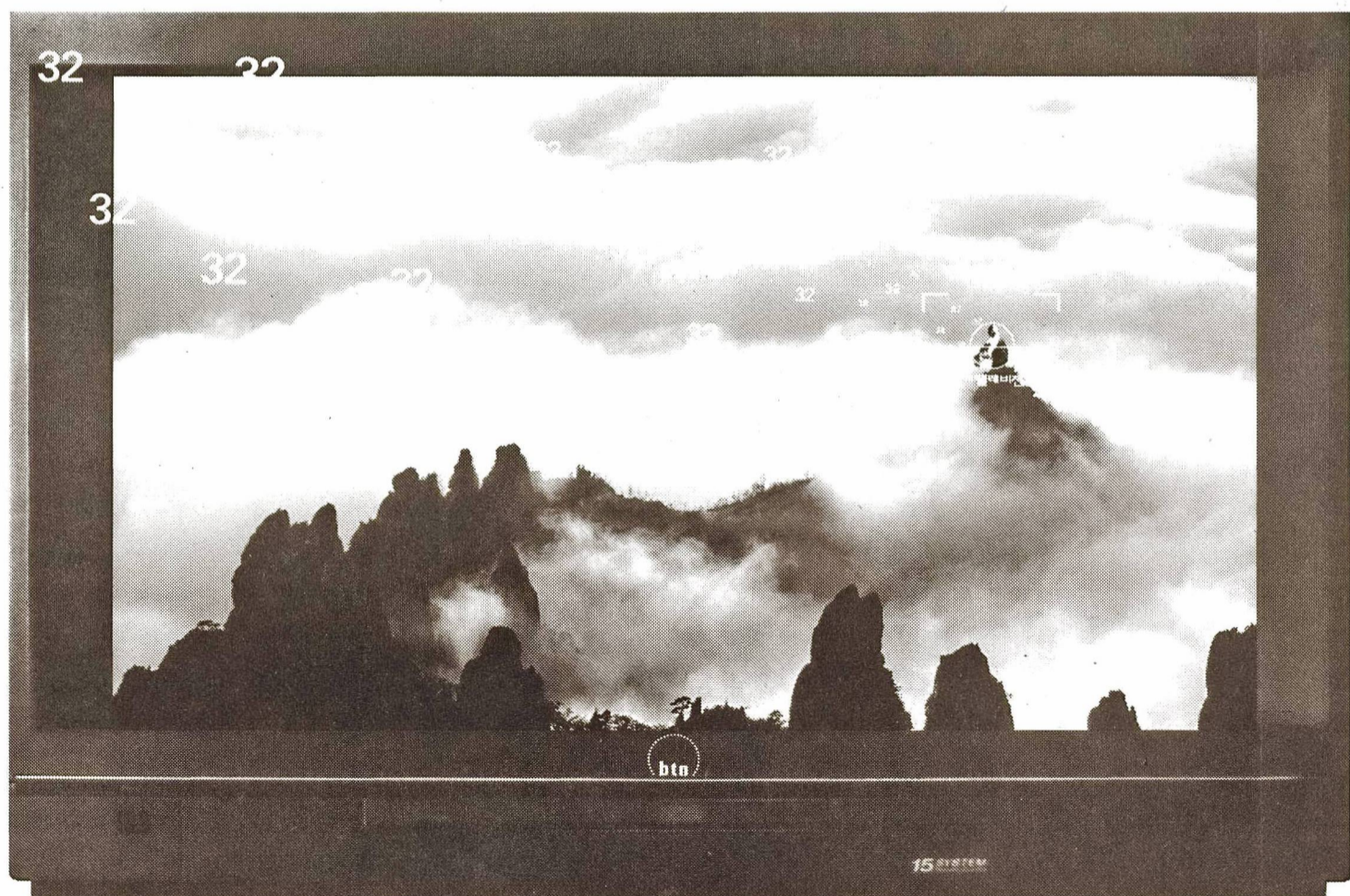
우리네가 모두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무명을 집으로 삼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마음 깊이 새겨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와 자비의 등불로 어두운 무명의 장막을 걸어내고 불국정토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까. 성도합시다.

btn캠페인 ① 불교TV 시청자가 됩시다

불교TV Ch32!

온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유익한 채널입니다



가족과 함께 TV를 보다가 때론 민망한 장면이 당황하신 적은 없습니까?
소.오락물 등 지나치게 청소년 취향 일색의 방송으로 볼만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산사의 목어 소리에서 덕 높은 스님의 말씀까지- 불교TV에는 샘물처럼 정신을 맑게 하는 청아한 프로그램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케이블TV 설치비 50% 할인권 을 드립니다

- 불교TV가 불자들에게 한하여 케이블TV설치비 50% 할인권을 드립니다.
- 케이블TV신청서 할인권을 제시하면 단독주택은 4만원에서 2만원으로 아파트는 6만원에서 3만원으로 설치비를 할인해 드립니다.
- 할인권은 96.5.31까지 유효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불교TV본사 ☎ 3270-3365로 문의하십시오.

btn
불교텔레비전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전화: (02)3270-3300 Fax: 3270-3498

사설

**불교의 위대성은 역사가 증명
교계 단결로 정법 수호를**

부처님께서 이땅에 오신지 2540년. 해마다 그날을 기리고 부처님 오신 뜻을 되새겨 보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착잡하다. 부귀와 영화를 다버리고 오직 진리의 길을 찾아 뼈를 깎고 살을 저미는 고행 끝에 인류의 미망을 깨뜨리는 빛을 드리워 주신지 2000년이 넘었지만 중생의 자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부처님이 법륜을 굴리신 이래 그 법화가 미친 곳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불교가 윤리의 중심이 되면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왔다. 기독교 문명이 일세를 풍미한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는 것과는 지극히 대조적이다. 불교는 그만큼 우리의 마음 그릇을 넓혀 주고 정신세계를 개발해 주므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불어를 입양하는 말할 것도 없다. 삼국시대와 통일 신라를 거쳐 고려로 이어지는 동안의 찬란했던 문화와 굳건한 기상을 통해서 불교는 우리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왔고 한민족이 하나로서 오늘까지 이어오게 된 원동력이 되었음은 국사에 조금이라도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땅의 불교를 생각할 때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불교 스스로의 타락과 무사방일에 더하여 견장을 수 없이 밀려드는 서구 사조의 격랑 속에서 불교는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사회의 한켠으로 밀려난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관 주도의 종교 편향 정책, 사회 각처에서의 이성의 도들에 의한 불교 음해, 바른 불교를 전달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교도의 세대간 단절, 불교계의 타락과 분쟁으로 인한 사회인의 멸시등 이 땅에서의 불교는 그 어느때보다도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대한 원인은 일차적으로 불교계와 불교인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우선 승직자들이 청정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감투싸움과 정계의 부정한 운용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으면서 스스로 위축되어 바르고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는 상황이 된 것이 불교인 스스로 반성해야 할 가장 큰 항목이다. 다음으로 각고의 노력과 수행으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이해할 생각을 하지않고 선대 불교인들의 후광에 힘입어 무사하고 안일로서 불교를 단지 생활의 방편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면서 기복불교에 국한 시킨 것 또한 불교인들이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할 악덕이다. 한마디로 자체가 정화되고 정립되지 못하고서 중생을 교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사회 각처의 불교 박해에 맞서고 정법을 세워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교인들도 단결해야 한다. 내만 무사하고 나에게 직접적 피해만 없으면 된다는 소승적 사고를 떨쳐버리고 불교에 대한 그 어떠한 침해에 대해서도 대동단결하여 맞서야 한다. 정법을 수호하고 마구니들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불교계의 단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그 분의 오신 뜻이 무엇이며 그 가르침의 근본의미는 어디에 있었던가를 상기하고 불교도로서 중생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통찰하여 이땅에 불교의 찬란한 꽃을 다시 한 번 꽃피우고 극락정토를 건설하므로써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자.

승직자 양성·보수교육에 중점

오는 6월경 첫 수업...원로스승·불교학자 강의 맡아

아사리·시교·교양과정으로 분류

종단의 숙원사업이었던 『불교대학』이 이제 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4월23일 총지불교대학개원법회에서 대학의 학제 및 교과과정 등에 대한 운영방안이 발표되었다. 교육의 지표는 교육을 통한 승직자 및 종무원의 자질향상, 예비승직자의 양성, 올바른 인성과 불교적 소양의 함양 및, 일반인을 위한 강좌개설로 불교인구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학제는 2년제 4학기이며 교과과정은 승직자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인 (아사리 (阿耨鞞) 과정), 본 종의 신도를 대상으로하는 (시교(施敎) 과정), 타 종의 일반신도들을 대상으로하는 (교양(敎養) 과정) 등 세 개 과정으로 나누어 진다.

아사리과정은 승직자의 자질과 교회력 향상을 목적으로 개설하며 불교향상시켜 교세발전에 기여하게 하고 수행체계, 포교방법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강의한다.



총지불교대학 원판식이 지난 4월 23일 2백여종도가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시교과정은 교도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불교인의 자질과 소양을 향상시켜 교세발전에 기여하게 하고 학습을 통해 올바른 신행을 유도하여 굳건한 신심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양과정은 일반신도들에게 불교의 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본종이 일정한 자격을 수여하므로써 승직자로

유도하며 불교 저변인구 확대에 기여하는데 그 뜻이 있다. 이를 통하여 본종의 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4년제 정규대학 및 불교전문대학원 개설의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교과과정은 3개 과정으로 구분하여 아사리과정은 매월 1회 2일간 강의가 이루어 지며, 시교과정은 매주 1회 1일간, 교양과정은 매주 3회 3일간 강의가 실시된다. 1시간당 수업시간은 80분이다. 1학기 과정은 3, 4, 5, 6월이며, 2학기는 9, 10, 11월이다. 처음 개설되는 금년은 1, 2학기 구분없이 6, 8, 9, 10, 11월을 1학년 전과정으로 하며, 아사리과정과 시교과정은 금년 6월에 첫강의를 시작하고, 교양과정은 순차적으로 내년 3월에 개설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승직자교육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강의시간은 아사리과정이 목, 금요일 오전 오후시간에, 시교과정이 화요일 오전시간, 교양과정은 월, 수, 금요일 오후시간에 실시된다. 또, 부의 교수나 인사 등을 초빙하여 매월 1회 특강도 개설할 계획이다. 수강은 출석강의를 원칙으로하며 차후 통신반의 개설도 고려 중이다. 교과목은 근본불교, 밀교개론, 보살사상, 천수경강의, 밀교경전연구 등이며, 강사진은 본종 원로스승과 동국대학교 교수진, 본종 법장원 밀교연구소의 연구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지불교대학의 운영은 당간중 앙교무원에서 맡기로하고 내년 이후 대학교무처에서 담당할 계획이다. 앞으로 과제는 학칙을 제정하여 적법한 의결기구를 거치는 과정이 남아 있고, 본격적인 학교운영은 내년 3월 이 될 것이다.

47회 춘계 강공회 개최

종단 발전을 위한 분임토의 및 전법관정식도

47회 춘계 강공회가 4월 24일에서 27일까지 본산 총지에서 개최되었다. 특정 종령의 개식사와 더불어 이번 강공회에서는 정대혁 교수의 오상성신관에 대한 강의와 서운길 교수의 밀교 특강, 법장원 연구원의 교회의 중요성에 관한 강의 및 금강경 강의가 있었으며 예년의 강공과는 달리 종단 발전에 관한 분임토의가 삼일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색이다. 또한 이번 강공회 개최식과 더불어 정사 및 전수 7명에 대한 전법관정식이 거행되었다.

이번 강공회에서는 종단 현실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개선 방안 및 향후 종단 발전의 방향을 조심스럽게 모색해 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수확으로 꼽히며 학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례, 의식의 통일 및 사원 장엄에 대한 문제도 처음으로 거론되었다는 것, 그리고 토의와 대화를 통하여 승단의 화합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9년만에 삼매야 계단을 열고 본종 특유의 전통에 의한 밀교의 전법관정식을 복원한 것은 향후 각종



전법관정식이 9년만에 복원됐다.

의식 및 의례를 더욱 다듬어 명실상부한 정통밀교종단으로서의 위상을 거론되었다는 것, 그리고 토의와 대화를 통하여 승단의 화합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번 9년만에 복원된 전법관정식은 밀교의 가장 성스러운 의식인 삼매야계단(三昧耶戒壇)으로서 7명의 정사 및 전수가 관정을 받았다. 이번엔 삼매야계를 받은 정사 및 전수

는 제석사 우승(홍운식)·단량사 정법계(김연자)·밀인사 인법계(박재연)·밀인사 원승(서진업)·정심사 연등원(권승자)·단량사 해정(정봉락)·관정(龍頂)이라는 것은 원래 인도의 국왕이 왕위 계승이나 태자즉위식 등에 즈음하여 정수리에 물을 붓거나 향수를 뿌리는 의식을 불교에 전용하여 입문하거나 戒 혹은 법을 받을 때 행하는 의식을 말한다. 밀교의 전법관정은 대체로 네가지가 있는데 입문관정·결緣관정·수명관정·전법관정이 그것이다. 입문관정(入門灌頂)은 밀교에 입문 시 십선계를 지키고 목숨을 버려서라도 비밀의 대법을 성취하겠다는 결심을 서원하며 이타행을 행할 것을 결심하며 받는 관정이다. 결緣관정(結緣灌頂)은 아사리(阿耨鞞)의 지도하여 대일여래를 비롯한 제불보살이 그려진 만다라 앞에서 지심으로 참회하고 전념으로 귀의하며 지심으로 만다라를 예배하므로서 연생가는 성불하리라는 인연을 맺어놓는 것이다. 수명관정(受命灌頂)은 학법관정(學法灌頂)이라고도 하며 아사리의

지도하에 눈을 감고 합장하여 암송 가락 사이에 꽃을 끼우고 그것을 태장제만다라를 향하여 던져 그 꽃이 맞는 제불보살과 인연이 있다고 보고 이것을 授法得佛이라 함) 그것을 본존으로 삼아 그 본존의 진언과 인계를 받는 것을 말한다. 만약 꽃이 불보살에 맞지 않고 아귀 등에 맞으면 그 사람은 아직 비밀법문에 들어 올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 더욱 참회하고 닦아야 한다. 전법관정은 전교관정이라고도 하며 이것을 받는 사람은 아사리가 되어 다른 사람을 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법이 매우 엄밀하다. 전법관정을 받은 사람은 금태양부(金胎兩部)의 비밀 및 비밀수법(秘密修法) 일체를 전수 받는다.

신입생 환영법회, 포항 수인사 학생회

수인사 고등학생회는 지난 4월 21일 오전 수인사에서 신입생환영법회를 개최했다. 원봉정사님을 비롯한 5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학생대표인 김성준(동지교2)은 인사말을 통해 "신입생과 상급생이 화합해 가장 훌륭한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회원이 부처님 말씀을 따라 수행정진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올바른 불자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한편 원봉정사님은 설법에서 "종단이 청소년 교화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 더욱 열심히 수행정진하여 자기 뿐만아니라 이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불국토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생회를 이끌고 있는 김해경교무는 학생들의 법회 참석율이 나날이 낮아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종단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총지불교대학 수강신청
☎ 552-1080~3
총지중보 구독신청
☎ 508-8933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청정하게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 | | | | | | | | | | | | | | |
|-----|---------|------|---|---|---|---|---|------|-------|--------|---|---|---|
| 회장 | 대한불교조계종 | 총무원장 | 송 | 월 | 주 | 이 | 사 | 한국불교 | 법륜종 | 총무원장 | 이 | 헤 | 우 |
| 부회장 | 한국불교 | 태고종 | 최 | 혜 | 초 | 이 | 사 | 대한불교 | 본원종 | 총무원장 | 이 | 대 | 화 |
| 부회장 | 대한불교 | 천태종 | 전 | 운 | 덕 | 이 | 사 | 대한불교 | 조동종 | 총무원장 | 윤 | 지 | 명 |
| 부회장 | 대한불교 | 진각종 | 김 | 락 | 혜 | 이 | 사 | 한국불교 | 여래종 | 총무원장 | 김 | 법 | 우 |
| 부회장 | 대한불교 | 조계종 | 방 | 월 | 서 | 이 | 사 | 대한불교 | 대승종 | 총무원장 | 신 | 지 | 오 |
| 부회장 | 대한불교 | 조계종 | 이 | 지 | 하 | 이 | 사 | 대한불교 | 일봉선교종 | 총무원장 | 김 | 법 | 해 |
| 부회장 | 대한불교 | 관음종 | 김 | 흥 | 파 | 이 | 사 | 보국불교 | 염불종 | 총무원장 | 신 | 사 | 보 |
| 이사 | 대한불교 | 법화종 | 정 | 대 | 호 | 이 | 사 | 대한불교 | 교정 | 총무원장 | 김 | 자 | 수 |
| 이사 | 대한불교 | 보문종 | 배 | 해 | 일 | 이 | 사 | 대한불교 | 미타종 | 총무원장 | 신 | 도 | 홍 |
| 이사 | 대한불교 | 원융종 | 정 | 일 | 공 | 이 | 사 | 대한불교 | 열반종 | 총무원장 | 김 | 상 | 곡 |
| 이사 | 대한불교 | 법상종 | 송 | 법 | 운 | 이 | 사 | 대한불교 | 조계종 | 문화사회부장 | 윤 | 광 | 타 |
| 이사 | 대한불교 | 원효종 | 전 | 무 | 진 | 이 | 사 | 대한불교 | 조계종 | 총무부장 | 김 | 도 | 현 |
| 이사 | 대한불교 | 충화종 | 김 | 남 | 정 | 이 | 사 | 한국불교 | 태고종 | 총무부장 | 윤 | 상 | 월 |
| 이사 | 대한불교 | 일승종 | 송 | 해 | 정 | 이 | 사 | 대한불교 | 천태종 | 총무부장 | 김 | 광 | 원 |
| 이사 | 대한불교 | 진언종 | 전 | 보 | 인 | 이 | 사 | 대한불교 | 진각종 | 총무부장 | 신 | 우 | 을 |
| 이사 | 대한불교 | 용화종 | 김 | 법 | 덕 | 이 | 사 | 한국불교 | 법화종 | 총무원장 | 김 | 도 | 원 |
| 이사 | 대한불교 | | 송 | 무 | 덕 | 이 | 사 | 대한불교 | 미륵종 | 총무원장 | 윤 | 상 | 을 |
| 이사 | 대한불교 | | 전 | 법 | 덕 | 이 | 사 | 대한불교 | | 총무원장 | 김 | 광 | 대 |



법공 통리원장

天下에 佛子라면 누구나 부처님 오신날을 奉祝하지않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교도들도 매년 4월 8일이면 너무나 자신이 다니는 사원에 나가서 등을 밝히고 부처님 오신날 奉祝佛事에 동참하고 불공을 올리지만 아직도 일부교도들은 한갓 福을 비는 燈, 각종 災難消滅을 비는 정도의 燈을 다는 분들이 없지않고 있습니다.

眞實된 佛子라면 부처님이 이땅에 오신 참뜻을 알고, 바른 믿음으로 佛敎를 실천하여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법신비로자나불을 根本敎主로 하는 우리 密敎-總指宗의 교도로서는 더욱 석가여래의 誕辰에 대한 남다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흔히 불교를 아직 잘 모르는 이는 '부처님'하면 오직 석가모니부처님 한 분만인 줄 알고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은 부처님은 석가여래 한분만이 아닌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이를 크게 세종류로 나누어 三身佛로 大別하기도 합니다.

자비의 등, 지혜의 등 밝혀야

봉축사

합니다. 이상의 三身佛은 이름은 비록 각각 다르지만 그 근원은 하나이니, 이

부처님 오신 뜻은

둘째는 報身佛-殊勝한 인력과 多劫修行으로 圓滿俱足한 德相을 성취한 부처로 例컨대 극락세계의 아미타불과 같은 부처님으로 一圓滿報身 노사나불로 대칭되고-

셋째는 化身佛-佛의 本願인 중생구제를 위해 제도할 중생을 찾아 형상을 自意로 바꿔가며 뜻대로 願力生하기를 千百億化身으로 몸을 나누는 석가여래 같은 부처님을 말

로보야 千菩薩 萬佛이 다 法身佛의 分化身이니 석가여래 부처님도 化身佛 중의 한 부처님이시며 석가여래 이전에도 이미 여섯 부처님(비바시·시가·비사부·이나함·구루손·가섭)이 차례로 나타나셨고 또한 앞으로 미륵부처님이 미래불로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 부처님들이 차례로 이땅에 應化해 오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불보살의 본원은 罪苦中에 어진 등을 켜고고해서 무슨 큰 공덕이 되겠는가 할는지 모르지만 제불보살들이 성불하기까지 前生課를 보면 부처님의 거룩한 깨달음을 흠모하고 지성으로 공경하는 뜻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광명이 중생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듯 부처님 계신 도량과 다니시는 길목을 등불로 밝히고 지성으로 공양한 공덕으로 잠차 부처가 된다는 授記를 받는 크나큰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입니다.

이는 결코 한갓 설화로서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연에도 佛道場에 등불을 켜고 佛敎에 동참하며 다만 福을 빌고 祈願하는 慈心의 등이 아닌 淸淨一念으로 자비의 등, 지혜의 등 그리고 성불의 인연을 맺는 등을 달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혼자만이 아닌 내 가족 우리 이웃 모든 중생을 한사람이라도 더 善緣을 맺도록 勸善의 등을 供養하는 뜻깊고 보람찬 奉祝日이 되도록 합시다.

의 네가지 입으로 짓는 죄, 탐·진·치의 세가지 뜻으로 짓는 죄에 대하여 설했으며 보살은 이와 같은 열가지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 먼저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그로 하여금 자기의 모범을 따라 계율을 지키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별기고 대승불교의 보살상



권기종
동국대 교수, 불교문화연구원장

대승불교는 새로운 이상적 인간상을 보살이라는 존재를 부각시켰다. 보살은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성불을 목표로 수행하는 구도자이다. 그러나 초기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을 단순히 보살이라고만 하지 않고 보살 마하살(bodhisattva mahasattva)이라고 구별하였다. 물론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마하살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생각하여 보살이라고만 쓰고 있다.

이란 어떤 뜻이며, 마하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물었다. 여기서 卍號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살이라고 하지만, 유정의 대집단, 대군중의 上首가 되어 많은 사람을 영도한다는 뜻에서 위대한 사람, 즉 마하살(大士)이라 한다고 설해지고 있다. 이리하여 보살마하살은 두가지 특성을 가지게 된다. 첫째는 관일체법공(觀一切法空)이요, 둘째는 불사일체중생(不捨一切衆生)이다. 첫째, 一切法이 모두 空하다고 보는 것은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無執着)는 뜻이다. 심지어 깨달음이라는 것까지도 집착하지 않으므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으므로 구애되거나 두려울 것이 없다. 둘째,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열반에 들려면 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반에 들지 않는다(不住涅槃), 오히려 괴로워하는 유정들의 세계를 보고 그 속에 뛰어들어 그들을 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보살마하살은 무량한 유정들을 열반으로 이끌지 않으면 안된다. 그

보살은 自利利他的 化身 집착없이 중생을 구제

지도자들이 '마하살'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아무 이유도 없이 썼던 것이 아니다. 보살, 즉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自利의 완성을 위한 것으로, 이것은 성문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생각한 대승불교의 새로운 수행자는 '위대한 사람',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중국에서는 大士라고 번역하였다. '마하살, 즉 mahasattva '큰 사람, '위대한 사람',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중국에서는 大士라고 번역하였다. '마하살, 즉 mahasattva '큰 사람, '위대한 사람',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중국에서는 大士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열반으로 인도될 사람도, 열반으로 인도할 사람도 없다. 또 무량한 무수의 중생을 열반으로 이끌지만 한 사람도 인도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법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살마하살은 허공의 갑옷을 입고 실재하지 않는 유정을 위하여 실재하지 않는 적과 싸운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살아 있었던 많은 보살마하살들은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였으며 이러한 삶을 살았던 실존적 인물은 대승경전의 필연 과정에서 경전속으로 투영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만을 구하는 自利의 人格이 아니라 利他的의 위대한 일을 함께 추구하는 보살마하살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리문답

비로자나불이란?

문: 밀교의 교주 비로자나 불은 어떤 부처님입니까?

밀교에서는 비로자나(毘盧遮那) 부처님을 근본교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비로자나는 범어 Vairocana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서 노사나불(盧舍那佛)이라고도 합니다. 비로자나는 태양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후에는 석가모니부처님의 본신(本身)을 뜻하게 되었고 이것이 더욱 확대되어 우주법계에 상주하는 이치의 부처님(理佛)이신 법신불(法身佛)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법의 본체이며 본불생

그리고 능성중무의 덕이란 모든 일을 이루게하는 덕입니다. 마치 태양빛이 삼라만상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덕은 온 우주만물이 성장발육하고 유지발전되도록 합니다. 광무생멸의 덕이란 불생불멸의 덕입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은 모든 법의 본체이며 본불생(本不生)입니다.

이렇게 보면 비로자나부처님이 바로 우주요 진리이며 일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불보살도 대일래비로자나부처님의 분화신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밀교의 세계에는 오직 비로자나부처님만이 계시며 우리가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삼고 여러 불보살의 도움으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심오한 세계를 증득하고자 힘겨운 수행을 하고 있는 것도 비로자나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바로 성불이고 해탈인 것이기 때문 비존한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경전소개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 ③

(보시바라밀다품 布施波羅蜜多品)

이 품에서는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구제하는 수단의 하나인 보살의 보시바라밀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중생을 빨리 구제할 수 있는가 하는 자제보살의 질문에 대하여 박가범 부처님은 중생을 구제하자면 의도의 그릇된 소견과 나쁜 친구를 멀리하고 육바라밀을 행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보시바라밀은 가장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했다. 또한 보시는 중생에게 도움을 주고 이바지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 따라 재시(財施)·법시(法施)·소시(小施)·대시(大施)·제일시(第一義施)로 구분되며 무상보시와 발보시로 행한 보시는 공덕이 무량하다고 설했다.

정계바라밀다품 淨戒波羅蜜多品

깨끗한 계율이 어떤 것인가 하는 자제보살의 질문에 대하여 부처님은 자신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계율을 지키도록하여 그들이 계율에 의하여 구제되도록 하는 것이 보살의 깨끗한 계율이라고 설했다. 다음으로 살생·투도·사음의 세가지 품으로 짓는 죄와 망어·양생·기어·악구

(안인바라밀다품 安忍波羅蜜多品)

이 품에서는 생사와 열반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온갖 모욕을 참는 방법으로 불도를 닦는 것이 곧 안인바라밀이라는 것을 설했으며 여러 가지 안인행에 대하여 설했다. 보살은 마구나 귀신이 자기를 침해하는 경우나 모진 시련이 앞을 막는 경우나 항상 인내력을 발휘하여 그것을 극복해야하며 의도들이 불법을 비방하는 것을 보면 보살은 자비심으로 그들을 인내성있게 감화시킴으로써 의도들이 편견을 없애고 불법을 받들고 따르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하였다.

(반야바라밀다품 般若波羅蜜多品)

반야는 곧 지혜를 의미하며 반야바라밀다는 보시·정계·안인·정진·정려바라밀을 낳는 근본인데 이 다섯 바라밀을 닦을 때는 언제나 지혜에 의거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떠나서는 해탈이나 열반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이 품의 요지이다. 특히 반야바라밀은 온갖 착한 마음을 낳을 뿐 아니라 과거·미래·현

재의 모든 부처들이 그로부터 생겨났으므로 반야경이아말로 모든 부처의 어머니가 된다고 했다. 이어서 지혜에는 큰 지혜와 작은 지혜가 있으며 반야의 큰 지혜를 원만히 닦기 위해서는 여덟가지의 선교지(善巧)

智)를 알아야하며 중생을 구제하는 반야바라밀이 의도의 교리나 성문연가의 불도보다 수승하며 그것을 닦는 대승보살에 의해서만 중생들은 구제될 수 있다는 것을 설했다.



2540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진흥원이
불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하는
불서 결정판!



통일불교성전

불교의 주요 경전을 엄선하여 교계의 권위 있는 필진이 우리말로 편찬한 법회를 최적으로 불서. 초심자는 물론 원숙한 불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지니고 읽어야 할 신행생활의 길잡이. 927쪽 / 9,000원

청소년 불교성전

청소년들이 불교의 진리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과 문헌들을 엄선하여 우리말로 편찬. 청소년들에게 참다운 인강형성의 길을 제시한 청소년용 범포 교재. 608쪽 / 5,000원

기간 다매

불교계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발간되는 종합학술정보지로 시론, 논단, 기획특집, 강좌/세미나, 교계보도자료편람, 불교관련 방송비평, 한국 불교관계는저 총합색인, 교계 주요 행사 일지 등으로 구성. 각호 / 5,000원

통일불교성전 설립자침서

통일불교성전에 수록된 각 경전의 해제와 교리개관을 함께 수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통일불교성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 법회시 불교의 핵심을 보다 명쾌히 설명할 수 있도록 편찬. 465쪽 / 9,000원

韓國佛敎總覽

1천 6백년 한국불교의 현황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불교계 최초의 종합자료집으로 총론(역사/현황/국제), 자료(종단/법인/단체기관), 목록(인명/사찰/불교문화재/불교도서논문), 법령(불교관계법령), 연표(한국불교사연표) 등으로 구성. 1490쪽 / 85,000원



다종교 사회 불교의 진로

부처님오신날 기념 불교학술세미나

지난 5월 17일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에서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중, 불교학과 교수) 주최로 부처님 오신날 기념 불교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권기중 원장의 발제와 사회로 이루어진 이번 세미나에는 불교사학의 태두인 김영태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최현각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정병조 교수(동국대 윤리학과; 동국대 중앙도서관장), 목정배 교수(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등의 강연에 이어 서윤길 동국대 불교대학장, 홍사성 불교TV 편성제작국장, 박선영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이봉춘 불교학과 교수 등 사계의 권위자들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종교 사회에서의 불교의 진로』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최근 타종교의 활발한 종교편향정책 그리고 가정내에서의 종교 갈등이 문제시되고 있는 시점과 때를 맞추어 시의적절한 주제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은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주제와 토론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사계의 권위자들이 불교의 역할과 진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 <권기중 교수>

권기중 교수는 발제사에서 다종교 사회의 일반적 성격으로서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는 있으나 그것이 종교간의 대립과 반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들의 광적인 행위가 심각한 종교분쟁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불교가 취할 태도로서 이해와 관용으로 최대한 타종교를 인정하되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증대시켜나가기로써 그 역할을 통한 힘을 가져야하며 불교도의 위상을 스스로 제고함으로써 언제나 이교도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에 서있던 불교가 불필요한 도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태 교수>

이어서 김영태 교수는 『한국사에서의 본 불교와 타종교』라는 주제에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래 우리의 고유신앙을 자비와 지혜의 종교성으로 성숙하여 민족의 정신 수순을 한결 드높였으며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 신라, 고려를 통하여 불교가 여타의 사상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왔는가를 밝혔으며 조선시대로

들어와 교단의 존립이 박탈된 상태에서 불교가 흥행이행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어서 근대로 들어오면서 외래종교에 무방비 상태로

이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교도도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분연히 단결해야 한다고 역설했

원장은 『종교다원사회에서의 한국 불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화엄의 一即多, 多即一의 원리를 내세워, 다양한 함 속에서 통일된 원리를 찾고 一

타종교의 활발 심각한 지경에 불교의 사회적 역할 증대시켜야

노출된 채 지금의 이러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부처님 재세시 수많은 외교들을 설복하고 이끌었던 그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현각 스님>

최현각 스님은 『정부정책의 종교 편향성 시비와 불교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는데 종교에 대한 서양의 시각과 불교적 관점을 대비하고 자연과 인위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특정종교의 비이성적인 면을 지적했다. 또한 한나라의 통수권자와 위정자가 편향적이었을 때 특히 정법을 벗어난 외도의 지지자였을 때 얼마나 많은 폐단이 있는가를 연거

이어서 불교의 특성상 인욕을 가장 큰 덕목의 하나로 삼지만 외도의 무명을 깨뜨리고 정법을 수호하며

의 총체적인 모습속에서 개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육상원용, 무진연기의 이치를 깨달아 독단과 편견에 빠지지 말고 救世大慈의 一心을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실천으로 서 계행을 지키고 보살심으로 다윈의 현실을 슬기롭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가족 구성원간의 종교적 불화와 해결』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정병조 교수는 한국인의 종교수용 태도가 현세이익과 기복에 지나치게 의존하므로서 불교는 불교대로 그 훌륭한 사상체계를 등한시하고 변질되었으며 기독교 또한 무속화되어 유례없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일부 개신교는 지극히 독선적이고 도전적으로 변모해 종교분쟁을 주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양상은 가족간의 종교 갈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바이며 대화와 통화를 통하여 서로의 종교적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종교적 갈등을 푸는 열쇠이며 특히 불교는 참된 실천으로 상대방을 감화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목정배 불교대학

하는 과정에서 감압적, 강제적이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즉 모든 종교는 도덕, 윤리, 사회, 문화적으로 공유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나 자기의 신앙체계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융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불교는 그동안 외도들에 대한 입장정리가 방치된 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외도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외도들을 불교도로 만들기 이전에 실천행위를 보이므로서 이들의 불성개발에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로의 종교적 가치 인정이 필요 인욕과 지혜로서 설복할 수 있어야

<서윤길 학장>

이어서 권기중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서윤길 불교대학장은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 사회에서 자기의 교리를 고수하는 것은 종교인으로서 당연한 것이나 그것을 전달

언어철학 존재와 인식을 의미의 차원에서 탐구

(1) 의미

20세기 들어 활발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언어철학을 살펴봄으로써 진언을 중시하는 밀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한다. 먼저 언어철학의 의미와 역사를 기술하고, 이어 현대 언어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인 비트겐슈타인과 20세기 언어철학에 크게 공헌한 철학자들의 언어에 대한 견해를 실는다. (편집자 주)

언어철학은 언어의 본질을 규명하고 언어현상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존재와 인식을 의미의 차원에서 탐구하는 철학의 한 분과이다. 그러나 다른 철학적 탐구와 마찬가지로 언어철학도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언어철학은 자연언어 외에 인공언어 즉 수화이나 논리학과 같은 형식 언어에도 관심을 가지며 언어에 관한 분석과 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본성과 언어사용이 전제로 하는 것 및 그 함의가 무엇인지에 깊이 관여한다. 언어에 대해 철학자들이 관심을 쏟는 것은 그것이 존재의 본질과 현

상의 구조에 깊숙이 개입되어있기 때문이다. 존재의 본질과 현상의 구조는 언어의 기능과 필연적 관계를 지닌다.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우리들 자신의 감정이나 희망, 소원 등을 밖으로 나타내준다는 사실에 있다. 여기서는 객관적 세계의 본질과 구조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감정을 표출하는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언어는 자아와 세계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매개의 역할을 하는데 인간의 지적 탐구는 언어의 이러한 기능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객관적 지식은 언어행위의 산물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지식으로 우리는 인간의 특징을 나타낼 뿐 아니라 다른 존재를 지배할 능력을 지니기 때문에 결국 언어의 인식적 기능이야말로 인간의 위력을 가장 잘 설명해준다고 볼 수 있다.

언어는 단순히 자기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서술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의도하는 것을 실천하는 수행적

기능도 지닌다. 언어에는 세 가지 계기가 있다. 언어 혹은 기호 그 자체와 이 언어가 지칭하는 대상과 이러한 대상에 대해 언급하는 화자가 그것이다. 모리스는 이 계기들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이론을 '기호론'이라고 부르며 이것을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취급하였다.

구문론에서는 형식체계의 속성이나 형식적 요소를 지니는 것이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한편, 의미론에서는 언어가 객관적 대상이나 주관적 사유를 표현한다는 사실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 의미론에서는 기호들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떠한 식으로 표현하는 지를 문제 삼는다.

끝으로 화용론에서는 기호를 매우 넓게 해석하여 언어적 기호와 그 화자 뿐만 아니라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까지 문제 삼는다. 화용론은 언어적 행위로써 특히 언어가 사용되는 문화적 맥락에서의 관계에 관심을 쏟는다.

인 스스로가 정법을 행하지 못하므로서 이교도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봉춘 교수>

이봉춘 불교학과 교수는 최근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종교대립 내지는 해탈에 대하여 불교인은 역시 불교적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해야하며 같이 맞서 물리적으로 해결하려한다면 견줄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인욕과 지혜로서 설복할 수 있는 불교인의 태도를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불교의 힘이며 생명이므로 이를 위하여 끝까지 정법을 지키고 불교도의 사회적 역할을 증대시켜나가기 할 것이라고 했다.

권기중 교수는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종교적 갈등, 특히 기독교의 불교에 대한 비방 침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이 사실이며 이를 근절하고 불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교계 자체의 각성과 실천 수행에 더욱 힘 쓸 것이 필요하며 불교인의 사회적 역할도 더욱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홍사성 국장>

홍사성 불교TV 편성제작국장은 그동안 해탈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절박하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임을 전제하고 지금의 현실은 타종교와의 대립, 갈등의 차원을 넘어 해탈이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을 최근의 실례를 들어 지적하면서 이교도들이 불교의 관대함을 이용하여 무례하게 침해하므로서 불교가 일반적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홍국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해탈의 구체적 사례가

발생시에는 여론을 환기시켜 공신자들을 양산하는 종교집단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관계당국에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촉구해야하며 불교인의 사회적 종교적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불교

무비스님 금강경 강의

경문과 함께 마치 설법하듯이 쉽게 깨닫는 우리시대 대강백무비스님의 금강경 강의는 번뇌의 禪氣와 해박한 불교지식이 어우러져 단순한 경전 강의를 뛰어넘어 우리 존재의 진실에 대한 물음과 그 해답을 주고 있다.

- 신국판/288면/값 5,500원

장조적인 생활인을 위한 교양지

佛光

원간 『佛光』은 광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진리의 빛을 우리의 생활 속에 드러낼 수 있도록 부처님의 법음(法音)을 담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참신하고 유용한 내용으로 전법지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불광 바라밀 총서

불교 교리의 핵심을 쉬운 언어로 전달해주는...

1.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11. 위빠싸나 1	20. 교양불교
2. 삶의 빛을 찾아	12. 위빠싸나 2	21. 불자에 걸맞은 의식
3. 빛의 목소리	13. 산이 다하고 물이 다한 곳에	22. 이 기쁜 만남
4. 행복의 법칙	14. 나무석가모니불	23. 나는 빛이요, 불멸이라
5. 반야심경 강의	15. 불교우화백유경	24. 룸비니에서 구시나기라까지
6. 보현행원풍 강의	16. 부처님오신날	25. 무소의 뿔처럼(상)
7. 불교교리강좌	17. 부처님의 생애	26. 무소의 뿔처럼(하)
8. 365일 부처님과 함께	18. 여인성불	
	19. 직장인의 신앙생활	
	20. 교양불교	
	21. 불자에 걸맞은 의식	
	22. 이 기쁜 만남	
	23. 나는 빛이요, 불멸이라	
	24. 룸비니에서 구시나기라까지	
	25. 무소의 뿔처럼(상)	
	26. 무소의 뿔처럼(하)	

비구니 시인 정은 스님의 첫번째 산문집!

사람의 향기

정은 스님은 충남 보령시의 작은 마을에서 세원사라는 작은 절을 짓고 수행하는 비구니 스님입니다. 그동안 세 권의 시집을 내고 많은 지면을 통해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마음 조각을 영롱한 시어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의 향기'는 시로는 다 말할 수 없는 출세품, 인연담 그리고 현재의 심정을 유려한 필치로 고백한 수필집입니다. 평소 궁금하게 생각했던 스님들이 갖는 내면의 또 다른 모습을 이 책은 잘 보여주고 있다.

신국판/228면/값 5,500원

밀교학의 근원과 최신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밀교학 입문서

밀교학 입문

B.빛따짜리아 지음
정인 옮김

• 신국판/284면/값 6,000원

中論頌研究

• 김인덕 지음

양장/376면/값 12,000원

불광출판부

우138-190 서울 송파구 석촌동 160-1
대표전화 420-3200 팩스밀리 420-3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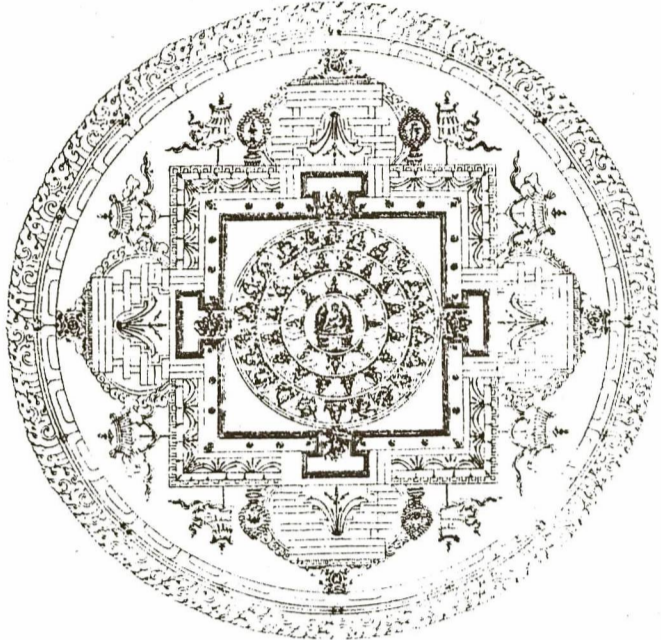
밀교개론

종교와 주술, 과학의 총합

효강 법장원장

밀교의 역사를 고찰해볼때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었지만 석존의 가르침 속에는 이미 밀교의 요소가 있었다는 것은 앞서서도 말한 바 있다. 밀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주술적 요소(呪術的要素)를 생각해볼때 20세기의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주술이라하면 전근대적(前近代的)인 것이고 별로 가치가 없는 잘라 없애버려도 좋은 것이 아닐까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밀교는 그러한 주술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전근대적이며 타락된 종교라고 오해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동서(東西)를 막론하고 고대인(古代人)에 있어서는 주술은 곧 과학이라는 것이다. 과학과 종교는 일체(一體)이며, 동일한 기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서구의 역사를 보면 서구에서는 중세에 이르러 비로소 이것들이 둘로 명확히 분리하게 되었다. 과학과 주술이 동일한 것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지 모르나 이 두 개가 모두 연금술(鍊金術)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고대인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과학의 방법과 주술의 방법은 꼭 같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학을 뜻하는 말로서 "바디야"라는 낱말이 있다. 그런데 주(呪) 또는 주술도 역시 같은

낱말인 "바디야"로서 표시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오명(五明)이라는 것이 있다. 오명이란 성명(聲明), 공교명(工巧明), 의방명(醫方明), 인명(因明), 내명(內明)의 5가지의 학문을 구별하여 말한 것인데 이 경우의 명은 학문을 뜻하는 것이다. 여기에 서 또한 흥미있는 것은 이 낱말이 "과학" "학문"의 뜻 이외에도 주문(呪文) 또는 주술도 역시 같은

이것을 불전(佛典)에서는 명주(明呪)라고 번역하고 있다. 명(明)은 학문, 과학을 뜻하며 주(呪)는 주술을 뜻하는 것이나, 이 둘을 본래 동일한 것이었다는 것을 "바디야"라는 낱말이 구별하여 말한 것인데 이 경우의 명은 학문을 뜻하는 것이다. 여기에 서 또한 흥미있는 것은 이 낱말이 "과학" "학문"의 뜻 이외에도 주문(呪文) 또는 주술도 역시 같은

과 주술이 다함께 경전 속에 서술되고 있다. 반면 서구의 역사는 종교와 과학의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 유명한 종교재판 법정에서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일찍부터 교회와 과학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근세에 이르기까지도 이것이 일체가 되어 주술도 되고 과학도 되며 종교도 되는 그러한 형태에서 종교가 전개되어 왔던 것이다. 당대(唐代) 진언밀교(眞言密敎)의 거장의 한 분이신 일행선사(一行禪師)도 뛰어난 천문학자였던 것이다. 중국에서는 일행선사를 화상(和尚)으로서 보다는 대단히 정도(精度)가 높은 역사(歷書)를 찬술(撰術)한 천문학자로서 평가되고 있다. 현대인들이 불교에는 매우 이상한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는 종교인이 곧 과학자라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현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종교와 과학, 주술의 세 가지를 분명히 구분하는 사고가 원래 없었던 것이다. 그때의 주술이라는 것은 현대인의 가치기준에서 '그런 것들은 현대적이지 아니니까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술이 아니고 고대인에 있어서는 일상생활 바로 그것이었고 할 수 있다.



법경(법장원연구원)

법이란 사회생활에 있어 행위의 준칙이며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을 말한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법은 절대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이다.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을 간혹 얘기하지만 그것은 법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은 법 없이 살 수 없고 또 잠시라도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럼 과연 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든 우리에게 법은 어떠한가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법의 이념과 목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바, 흔히 법의 안정성(安定性), 법의 정의(正義), 법의 합목적성(合目的性)으로 얘기된다.

법, 알고 실천하자

하고 법에 의해서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고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점은 먼저 법은 분명하고 명확해야 한다. 존재가 분명해야 하고 내용이 추상적이지 않으며 여러 해석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법을 함부로 고쳐서는 안되며 쉽게 자주 개정되어서도 안된다. 조령개시의 법은 결국 신뢰감을 떨어 뜨리며 준법정신을 갖아 먹는다. 또 법은 실제로 행해져야 한다. 그것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와(즉 사문화되어선 안된다는 의미)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시행하지 않는 법은 과감히 고쳐야 하며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함은 마땅한 것이며 어느 특정 대상을 정제할 수 없이 만들어진다면 법의 가치는 물론이고 기강마저 흔들리게 된다. 또한 법의 합목적성(合目的性)으로 얘기된다.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은 제대로 된 법 해석과 적용이다. 아무리 법을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집행하는 자가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그 법을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불신과 투쟁만이 난무할 것이다. 법의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며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만다. 더욱이 구성원의 결속이란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법 집행은 공개적이어야 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법 해석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사전 협의를 통해 답한다면 정의는 사라지고

안정성 보장과 정의실현을 기준에 따라 제정·집행돼야

원시사회에서는 굳이 법이 필요하지는 않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시대가 바뀌면서 사회제약이나 약속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또 문명의 발달은 더 많은 법을 제정하게 하였다. 법의 당위성은 제논의 여지가 없었으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아야 할 점을 몇 가지 지적해보고자 한다. 그것은 법이 법답아야 하고 그 법이 법답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오늘날 이 사회가 혼란하고 무질서한데는 바로 이러한 점을 망각하고 지켜지지 않는데에 그 원인이 있다. 법 답지 못하고 법 답게 집행하지 못해서 실망과 허탈감, 배신감, 반목과 불신이 쌓이게 되지 않았나 본다.

과는 달리, 지나치게 준엄하거나 경미하여서는 아니된다. 준엄하면 지키기가 어렵고 경미하면 법집사가 위태롭게 된다. 그래서 구성원의 의식과 정서에 합당하여야 법의 존재가치가 인정받게 된다.

둘째, 법은 정의(正義)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정의란 평균적이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며 배분적임을 내포하고 있다. 어느 누구에게는 더 주고 다른 누구에게는 덜 주어서는 아니되며, 누구에겐 관대하고 다른 누구에겐 엄격해서도 안된다. 그 실천은 차별 없는 평등이어야 한다. 그러나 평등이라하여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적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은 같게, 같은 상황에 있지 않은 사람은 다르게 적용하는 것과 같이 차등적용하는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가당착적이고 아전인수적인 해석과 적용, 집행이어서는 안된다.

셋째, 법은 합목적성(合目的性)이어야 한다. 합목적성이란 목적에 합당하여 함을 말하는데, 법집사가 어떠한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서 제정 집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회와 조직의 구성원이 법을 신뢰

학습의 순환만이 반복될 뿐이다. 또 법은 원칙적이어야 한다. 원칙없는 법집행은 불신과 냉대만을 낳게 하며 무질서를 초래한다. 원칙이 있을 때 신뢰하며 건강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일관성 있는 원칙과 법집행이 조직의 생명을 영원하게 한다.

기본에 따라 해석되어서도 안되며 필요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서도 아니되며 이해관계에 얽혀서도 아니되고 정실(情實)에 치우쳐서는 더욱 안된다. 또 한가지 주의 해야 할 것은 법이 법으로서의 합당한 효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였다하더라도 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으면 그 법은 효력을 상실한 사법(死法)과 다를바 없다. 법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대로 현실적으로 지켜지고 있는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한낱 이론에 불과한 것이다. 이 논리는 국가의 법 뿐만이 아니라 조직과 단체의 어느 법에나 마땅히 고려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법의 이념이며 정신인 것이다.

신간안내

불교와 인도사상

비슈와나스

리사드 바르마 곱

인도 Patna대학교수로서 인도의 사회종교학과 철학, 정치학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비슈와나스 리사드 바르마의 「초기 불교와 그 기원」을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서, 인도 철학 일반과 함께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예문서원에서 기획한 불교 철학 시리즈 까르마총서의 첫 작품이다.

(김형준역, 예문서관, 1만원)

다그나가학파의 논리

체르바츠키 체계적 지식을 바탕으로 서술



불교 논리학

동양학의 고전으로서, 인도와 티베트의 원전에 대한 완벽한 연구에 토대를 두고 있다. 저자 체르바츠키(1886~1942)는 20세기 초반의 25년간 인도학 분야에서 기념비적 업적을 남긴 성 페테르스부르크 학과의 지도자들중 한 사람으로 불교 인식론 연구의 서전을 장식한 러시아의 불교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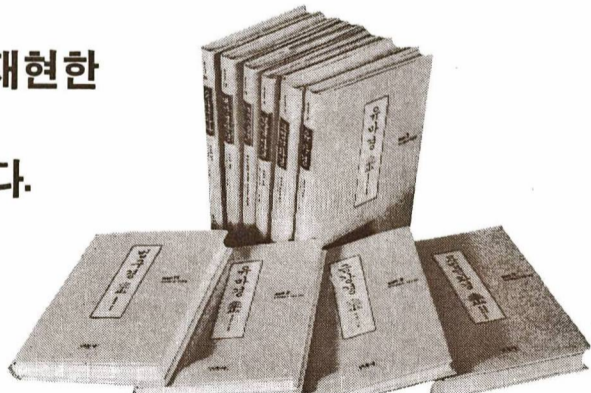
두권으로 출간된 이 책은 특히 저서 서양의 논리학과 철학의 역사를 레셀과 근대 철학자들의 사상을

섭렵한 체계적 지식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아시아 문화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 산스크리트 언어학자들, 일반 철학자들은 물론 동양철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서양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저술들이 초기불교를 다루고 있으며, 책과 논문들도 거의 종교적 측면을 다루고 있고 전체적인 불교철학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의 광범한 논리체계를 간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더욱 더 필요한 책이다.

불교경전

부처님 말씀을 오늘의 언어로 재현한 민족사판 <불교경전총서>는 우리시대의 새로운 대장경입니다.



- 01] 화엄경 김지건 역
무한한 佛道와 영원한 보살행을 설하는 대승 불교 최고의 경전! / 값 9,500원
- 02] 유마경 박용길 역
10대 제자와 유마거사가 등장하여 불이법문을 설하는 禪의 경전! / 값 6,500원
- 03] 묘법연화경 이재호 역
삼승을 보여서 일승묘법의 대승불교사상을 설한 대승경전의 결정판! / 값 13,000원

- 04] 금강경 정호영 역
공이란 무엇이며, 무집착이란 무엇인가?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의 명쾌한 문답! / 값 4,500원
- 05] 능엄경 김두재 역
중생의 번뇌와 속업을 파헤쳐 해탈의 길로 이끄는 깨달음과 수행의 경전! / 값 9,500원
- 06] 원각경·승만경 전해주·김호성 역
禪과 敎를 회통한 원각경. 뛰어난 승만부인의 설법, 승만경. / 값 8,500원

- 07] 정토삼부경 法頂 譯
苦海의 중생들에게 극락정토를 설한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 값 6,500원
- 08] 범망경·지장경 一指 譯
수행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을 설한 범망경. 지옥중생을 구원하는 지장경! / 값 5,500원
- 09] 과거현재인과경 해원 譯
부처님의 전생과 금생의 인과를 설하여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 경전. / 값 8,500원

- 10] 백유경 현각 譯
백 가지 비유를 제시하여 어려운 의도와 중생들을 가르친 아름다움의 경전! / 값 6,500원
- 11] 부모은중경(관음경·우림보경)
부모님에 대한 효행을 설한 우리나라 불교도들의 마음의 경전! 一指 譯 / 값 5,500원
- 12] 대반열반경 강기희 譯
부처님의 열반을 계기로 영원한 깨달음의 세계, 존재의 무상을 설하는 경전! / 값 5,500원
- 13-14] 아함경 00 돈연 譯
인생의 지침서, 고구정년한 부처님 말씀, 지혜와 자비의 경전! / 값 1권 7,500원 2권 7,000원
- 15] 법구경 석지현 譯
삶을 풍요롭게 하는 마음의 양식, 영원한 삶의 안내자. 진리의 꽃다발! / 값 6,500원
- 16] 숫타니파타 석지현 譯
초기불교의 원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최초의 경전! 부처님의 정신세계. / 값 7,000원
- 17-18] 밀린다왕문경 동봉 譯
밀린다왕과 나선비구와의 명쾌한 문답. 동과 서의 만남! (97년 3월 간행)
- 19-20] 본생경 00 이미령 譯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많은 생을 편력한 부처님 전생이야기! / 값 1권 8,500원 2권 9,500원
- 21] 미륵경전 이중의·무관 譯
미륵부처님이 하생하여 고통받는 말세 중생들에게 구원과 희망을 주는 경전! / 값 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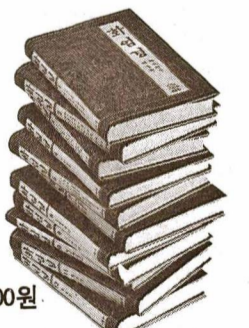
1110-1130 서울 중로구 청진동 208-1
전화 (02)732-2403~4, 722-7679 팩스 (02)739-7655

민족사

無比스님 원역 80권본 화엄경의 원역판

한글 화엄경

불교 최고의 경전 화엄경!
5천여 불자가 이미
한글 화엄경을 모셨습니다!



특가 : 전12권 160,000원

무미스님 원역 한글 화엄경의 특징

- ① 80권본(전40품)의 원역판
 - ② 모든 불자들이 읽고, 독송하기 좋은 새 한글 번역.
 - ③ 중국 天童山판 80권본 화엄경 원문 수록.
 - ④ 화엄경의 어휘를 알기 쉽게 풀이한 華嚴經小辭典 발간.
 - ⑤ 상세한 단락 구분과 소제목의 첨부하여 내용 파악이 용이함.
 - ⑥ 신장 주시 백배나 소포로 보내드립니다.
- (각종 카드로도 구입 가능)

행복은 내마음에 있다

신행일기

행복은 내 마음에 있다 하루는 40대의 아주머니가 제도되어 왔다. 그 아주머니의 사연을 들어봤다. 시동생이 사업을 한다고 해 보증을 서줬는데 사업이 실패해 아주머니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셋방살이를 하게됐다. 아주머니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죽는다며 드러누워버렸다. 그렇게되니 식사 빨래 청소 아이들 학교시중 등을 하는 사람이 없어 집안은 엉망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동생으로 인한 불행이었으므로 아내를 나무랄 처지가 못됨은 물론 가족

때문이다. 사람마다 마음그릇이 다르다. 같은 물을 보아도 사람은 물로 보지만 고기는 집으로 보고, 귀신은 피로 본다 했듯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겪는 고통도 마음그릇에 따라 다른 것이다. 조그마한 일에도 죽는 시늉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같은 월급으로도 행복하게 잘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매일 불만속에 짜증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내가 못사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 다 가는 대학 못들어가는 게 누구 때문인가? 누구를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다 잘살고 싶고 잘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마음대로 안되는 것은 이 세상은 나의

원수나 하지만 이 모두 헛소리다. 내 허물과 실체가 상대에게 비추지는 것이다. 내가 수단이 없어 돈 못벌어 돈이 원수요, 자식교육 잘못시켜 원수되고, 남편 다루는 법을 몰라서 원수가 되는 것이다. 복 지으면 세상에 널려있는 게 돈이다. 없다고하니 없는 것이 생활에 비추지는 것이고, 안된다고 하니 안되는 것이다. "아주머니, 지금부터 집에 가서서 목욕부터 하시고 집안청소와 밀린 빨래도 하시고, 밥해놓고 남편과 아이들 기다려 보세요. 빚을 다 갚았으니 지금부터 용기 내어서 새 출발 하세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고 돌아가셨다. 저녁에 남편이 아이들과함께 들어

불행에 빠진 가정, 총지종 입문해 새삶 결심

을 대할 면목조차 없었다. 아이들도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남편은 점포에 나가서 맥없이 앉아 있기만하고 장사할 의욕도 없어 버렸다. 저녁에 집에 들어올때도 소가 도 살장에 끌려오는 모습으로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살피고, 아이들도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들어왔다. 이웃에 총지종에 다니는 보살이 계셨는데, 보다못해 "애기엄마, 이렇게 밤도 안먹고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나하고 내일 아침에 좋은 데 갑시다. 나를 따라가면 아주머니의 마음이 확 풀리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 꼭 갑시다. 해서 왔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고해라고 하신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업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수순하고 부처님의 뜻에 맞게 불공하며 살아갈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시동생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며 죽는다고 누워있으면 해결이 되는가? 혼자 죽으면 다행이지만 남까지 죽이게 되는 것이다. 저승가면 업경계가 있다고 한다. 생전에 한 일이 모두 업경계에 나타나고 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은 전세의 업이 생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주머니의 고통과 괴로움도 전세에 지은 빚을 갚은 것이니 그리 괴로워할 할 것이 아니다. 잘살려면 잘사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짜증내고 원망한다고 속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고, 잘되지도 않는다. 원수놈의 자식이니, 남편보고 저

였다. 오늘도 누워서 앓고있을 부인을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들어 서는데 무엇이 이상했다. 입구부터 흰하고 방에 들어서니 깨끗이 정돈되었고 밥상까지 차려놓고 부인이 반갑게 맞았다. 남편 보고, "어서 오세요. 그동안 내가 어리석었어. 용서하세요." 아이들 보고도, "엄마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남편도 감격해서 울고, 모두 울고 웃는 속에서 고난은 사라지고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후 남편도 제도되어 각자집이 되었고, 사업은 나날이 발전되고 아주머니도 열렬한 보살이 되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서원담에 나가고 있다.

법정 정사 (진주 화음사 주교)

일상에서

방송 소감

방송국에 가는 날 약간은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을 다른 사람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태연한 표정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를 안은채 방송국을 향했다. 집에서 TV화면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생방송현장은 무척 긴장된 모습이었다. 방송이 시작되기 전의 준비과정과 무척 까다롭고 어려워 보였다. 한치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방송을 위해 모두 최선을 다했다. 그날의 주인공은 서른세살의 주부였다.

갑작스런 사고로 남편을 잃고 어린 삼남매와 늙은 시어머니의 생계를 위해 공장에 다니며 어렵게 살아가는 사연이었다.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가정을 소홀히 여겨 경제적 어려움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과 만나면 극복해보려는 의지는 보이지않은채 자식을 버린 부모의 얘기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다. 이러한 마당에 불행한 현실을 피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과 노모를 돌보며 열심히 살아가는 주부의 사연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우리는 누구나 갑자기 불행한 사건과 만날 수 있다. 그럴 때 내 위치

를 버린다면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처한 사회도 곤란해지게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의 위치, 부모로서 자식으로서의 본분을 잃지않은채 최선을 다한다면 희망이 있을 것이다. 당장은 힘들 지 몰라도 그 같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어떤 삶이 옳고 그르다고 우리가 판단해 그 사람에게 요구하고 또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람이 선택한 길을 도와주는 입장이 되어야한다. 어떤 경우에도 장단점은 있다. 진정으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자비심에서 우리나라의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참된 봉사자라 불릴 수 있다. 서남교(실지사)

조경숙 보살



이런불자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바로 세수를 하고, 바르게 앉아 『음마니반메흠』을 한다는 曹卿淑보살(46)은 또 밤을 지을 때 한 번도 빠지지않고 절량미를 모아왔다고 한다. 절량미란 절의 대중을 위해 밤을 지을 때 조금씩 모아두었다가 절에 갖다주는 쌀을 말한다. 말로 하기는 매우 쉽지만 그일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란 오랜 수행이 따르지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아이들이 소풍을 가거나 특별한 일이 있어 아침이 바빠때엔 간혹 불

「길」을 본 후

지난 일요일 TV에서 '신문학관'이라는 프로를 봤다. 「길」이라는 제목이었다. 장이수가 보살후가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차에서는 아이를 버린채 도망가는 어머니를 목격하고, 초상집에서는 죽은 이를 애도하는 분위기가 보다는 술과 놀이, 싸움으로 초상집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조롱한 시선으로 관찰한다. 또 그는 오랜만에 집에 들어왔지만, 그의 어린 아들은 그를 두려워하며 피하기만 한다. 그를 반기는 기색은 찾아보기 어렵다. 아이를 버린 어머니나 초상집의 분위기, 그를 반기지 않는 아들 등이 모두를 TV영화는 인생의 모습이 라고 해석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 이 상황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면 이는 우리모두의 마음자리가 맑지 못함이 근본원인이다. 마음을 밝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태로 끌어올리면 우리의 현실은 지금보다 나은 것이 될 것이다.

『음마니 반메흠』으로 여는 하루

반메흠이 저도 모르게 나오더군요. 종교가 없는 사람은 절박한 순간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 무척 외롭고 힘들 거라는 생각도 떠오르더군요. 그때만큼 종교가 있음에 감사한 적도 없어요." 조경숙보살이 총지종에 입문한 것은 13년전이다. 처녀때는 교회에 나갔었는데, 결혼후 시댁은 불교집안이었다. 한집안에 종교가 둘 있으면 화목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남편더러 교회에 같이 나가자고 졸랐으나 남편은 이미 너무나

수원 전수님이라고. 첫날 전수님은 그를 위한 설법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아직까지도 전수님과 관계는 친정부모만큼이나 가깝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전수님을 생각하고. 조경숙보살네는 어느 가정 보다는 화목하다. 아이들 둘은 공부 잘하고 착하며, 무엇보다도 그를 만족시키는 것은 남편의 신심이다. 남편은 매일 불공을 하고, 총지사에서 실시하는 가족법회에서는 그 시간을 전부 진

첫날 전수님 설법에 감화돼

경인교구 합창단 창단의 일등공신

공을 빼먹기도 해요. 그런 날은 하던 일을 마치고서라도 기도를 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보면 저도 어지간히 종교에 빠진 것 같습니다." 언제 종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팠을때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됐다고 한다. "언젠가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어요. 흔적할 것 같은 순간에 『음마니

오랜 시간 불교에 익숙해있어 교회에는 도저히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하는 수 없이 그도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친구 가운데 총지종의 사원에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 친구의 권유로 사원에 나가게 됐다. 불교이긴한데 절과는 완전히 다른 사원의 모습을 보고 처음 얼마동안 그는 갈증해야했다. 그런 그의 의심을 풀어주고, 총지종과 인연을 맺도록 도와준 이는 광주 법황사의 법

행하기도 한다. 또 경인교구합창단을 만든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현재 합창단 반주를 조경숙보살이 맡고 있으니 합창단은 두 사람에게 의해 만들어졌다고해도 과언은 아니다.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을만큼 자라면 봉사활동을 해 종교인으로서 모범을 보일 생각입니다. 그동안 종교로부터 받았던 것을 사회로, 불행한 사람들에게로 회향하는 것이죠." (지)

전강칼럼

간염의 증상과 대책

간염은 원인에 따라 바이러스성 간염, 약물에 의한 독성간염, 알코올성 간염으로 분류 할수 있다. 이들 중 특히 문제시 되는 것은 바이러스성 간염인데 이것은 다시 A형, B형, C형으로 나뉜다. A형 간염은 주로 10세 미만의 소아기에 걸리며 만성이 없으며 대부분 완치가 된다. C형은 혈액을 통해 감염되며 우리나라 만성간염의 1/3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C형은 급성기에 황달이 적고 B형에 비해 증상은 가벼우나 만성 간염이 되는 확률이 높다. 현재로서는 예방 백신이 없으므로 주의만이 유일한 예방책 이다.

B형은 우리나라 간염의 주 원인이 된다. 급성, 만성간염을 포함한 B형 간염 보유자는 성인의 약 10%에 이른다. 전형적인 급성 B형 간염은 입맛이 떨어지고 나른하고, 점차 황달이 생기는 경과를 취하나 황달이 없이 오는 수도 있다. 급성B형 간염은 90%

에 면역이 없는 사람이 절필경우 100%감염된다. 목욕탕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도기 혹은 때밀이수건은 환자의 혈흔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개인 사용해야한다. B형 간염의 소득은 와이펙스용액 같은 특수용액에 10분이상 담겨야 살균된다. 우리나라는 B형 간염 보유자가 많으므로(즉 감염원이 많다) 개인적인 예방이 더욱 중요시 된다. 다행히 B형 간염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을 받을 경우 간염으로 부터 보호될수 있다. 예를들면 환자가 사용한 주사바늘

예방접종으로 보호돼



2540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총지 불교 대학 개원



「깨달음의 사회화」

깨달음의 사회화는 나와 사회, 민족, 자연은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부처님의 인연법에 따라 보살행의 적극적 실천을 통해 불교정신을 구현하자는 것이며, 중생구제 대중성불을 이루어 사회와 역사 그리고 민족의 고통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새로운 실천 불교 운동이다.

<봉축위원회 주제문 전제>

구분	아사리과정	시교 과정	교양 과정	비 고
1. 대 상	승 직 자	종단 신도	일반 신도	
2. 교육 연수	2년 (4 학 기)			
3. 교육 기간	*1학기: 매년3~6월		*2학기: 매년9~11월	
4. 교육 일시	*매월 1회 2일간 (매월 셋째주 목·금요일 오전 오후시간)	*매주 1회 1일 (매주 화요일 오전시간) (월초불공기간은 제외)	*매주 3회 3일간 (월,수,금 오후시간)	
5. 교과목	근본불교, 밀교개론, 보살사상, 천수경 강의, 밀교경전연구.			
6. 교육 장소	본 대학 2층 강의실 (한마음유치원 건물 2층 전층)			
7. 수강 방법	출석 수강 (통신반은 차후 연구검토)			
8. 모집 인원	승직자 진원	45명	45명	
9. 원서 접수	개강 즉시	1학기 : 1.20-2.20.	2학기 : 7.20-8.20	



총 지 불 교 대 학

(135-082)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직통전화(02)508-8933 대표전화(02)552-1080~3 팩스(02)552-1082

룸비니에서 쿠시나가라까지



가난한 여인이 올린 등불 중생구제 염원으로 수기받아

부처님이 사위성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의 일이었다.

그 나라에는 난타라는 과부가 살
고 있었다. 난타는 자식도 없었을 뿐
만 아니라 별달리 가진 것도 없어
구걸을 하면서 살아갔다. 하루는 모
든 나라가 웅성거렸다. 국왕과 신화
들,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부처님의
거룩한 덕을 기려 공양하느라 그런
거룩한 덕을 기려 공양하느라 그런

등불만은 홀로 창연하게 빛을 밝
히고 있었다. 그 날은 목건련이 등불
을 살피는 차례였다. 이미 날이 밝자
공연한 등불을 치우려던 목건련은
이상한 광경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
른 등불들은 다 기름이 닳아 꺼졌는
데, 아주 작은 등불 하나만이 그대로
불을 밝히고 있었다.

목건련이 손으로 그 등불을 끄려
고했으나 등불을 밝히고있는 불꽃은
흔들리지조차 않았다. 목건련은 이상
무슨 죄를 지었는가.

거룩한 스승 부처님이
이땅에 계시지만 가진
것 없이 복밭에 심을
씨앗 하나 없으니...

난타는 이렇게 괴로
워하다가 구걸기에 나
섰다. 난타는 한 낱의
돈을 손에 넣자마자 기
름집으로 달려갔다. 기
름을 팔라는 나타에게
주인은 물었다.

“한 낱의 돈으로 기름
을 사봐야 얼마나 되느
나. 너무 적어 쓸 데도
없을 그 기름을 사서 대
체 무엇을 하려는가?”

그러자 난타는 단 한
낱의 돈일지라도 등불
을 밝혀 부처님에게 공
양하고자 한다는 자신
의 심정을 자세히 이야
기하였다. 난타는 그
기름을 얼마 한없이 기
꺼하며 등불을 밝히고는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갔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서
원을 세웠다.

“부처님 저는 가난해서 이 작은
등불 하나 밖에는 공양할 수가 없습
니다. 그렇지만 이 공덕으로 다음 생
에는 지혜와 공명을 얻게 하십시오.
그러하여 모든 중생의 어두움을 없
애게 하여 주십시오”

이윽고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 다
른 등불들은 다 꺼졌으나, 난타가 밝
추었다.

“나는 이 다음 세상에 이르렀다. 두 아
승지와 백경 동안에 부처가 되리라.
그러하여 이름은 동광이라 하고, 여래
가 갖추어 가지 호를 드리내리라.”

이런 부처의 수기를 받은 난타는
한없이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풀이
아서 출가하기를 원하였다.

부처님은 가까이 난타의 출가를
허락하셨다. 난타는 그 자리에서 비
구니가 되었다.



민화 「연화도」, 102X 37cm, 개인소장.

연등회 기념 4대 성지순례

탄생지 룸비니

룸비니는 네팔 남부 타라이 지방
최대의 도시인 바이라와 서쪽 약 18
킬로미터 되는 지점, 즉 티나우강등
몇 개의 작은 강들을 가로질러서 자
동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
다.

현재 룸비니는 불교도의 순례지로
서 정비되어, 지난날 이 지역을 뒤덮
고있던 정글은 북쪽 산기슭으로 밀
리 밀려났다. 유적의 중앙에는 흰색
으로 단장된 아담한 마야부인당이
있다. 사당 내부에는 표면의 침식으
로 표정조차 확실치않은 마야부인이
종자와 함께 나무 밑에 서있는 상이
안치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이 상을
손으로 만지면서 예배하고 있다.

보통 '마야데비 템플'로 불리는 사
당의 남쪽에는 석존의 탄생시에 마
야부인이 목욕을 했다고 전해지는
네모난 연못이 있어서, 옆에 선 큰
나무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다. 그리
고 그 남쪽으로는 승원터가 묻혀있
다.

아쇼카왕이 건립한 석주는 마야부
인당 서쪽에 있는데 현재의 높이는
약 7.2미터이다. 석주의 일부분에는 나
뢰의 흔적과 균열이 있지만, 표면에는
마우리아시대의 독특한 기법으로
갈고 닦은 광택이 그대로 남아있다.
기단으로부터 약 3.3미터 되는 위치
에 아쇼카왕의 비문이 보인다.

마야부인당 주변에는 벽돌로 만든
크고 작은 불현 스투파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

성도의 땅 보디가야

보디가야는 비하르주의 가야시 남
쪽 약 10킬로미터 되는 지점, 즉 동경
85°의 자오선상에 있다.

가야시에서 오른쪽으로 가야쉬르
사원역과 왼쪽으로 화르구강을 사이
에 두고 정전각산을 바라다보는 평
탄한 길을 가다 보면, 보드가야 대탑
의 끝머리가 푸른 나무숲 사이로 멀
리 보인다.

이곳은 일찍부터 석존의 성도와
관련하여 '삼보디', '마하보디' 등으로
불려왔다. 또 13세기에 이곳을 찾아
온 티베트의 승려들 다름사바만처



룸비니원. 마야부인당이 무우수 뒤로 보인다.

럼 금강보좌 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도 했다.

화르구강의 지류인 나이랑자나강
의 언덕에서 그리 멀지않은 곳에 석
존 성도의 성지가 있다. 이 일대는
예전에는 모래에 묻혀있었다고 한다.
계단을 내려가면 정비된 유적이 펼
쳐지고 중앙에 대탑, 서쪽에 금강보
좌와 보리수가 서로 인접해있는 것
이 보인다. 그것들을 에워싸듯이 들
로 만든 난간 기둥들이 쪽 둘러쳐
있으며, 또 그 주변에는 크고 작은

되는 지점에 있다. 그 지명은 '사랑
가나타' (사슴의 왕)를 생각한 말에서
유래한다.

바라나시에서 사르나트에 이르는
지역 일대는 평탄하고 거의 기복이
없는 인도평야가 이어진다. 열불탑쪽
에서 조망해보면 수림의 머리 너머
로 원형의 돔 형식으로 세워진 다메
크 스투파와 모가나 첨탑을 가진 현
재의 트리가다바루티의 두 건축물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메크 스투파의 표면은 직선적인

쿠쉬나가라의 유적은 고라크푸르
의 동쪽 전원 안에 남아있는 사라수
의 원시림을 빠져나와 50킬로미터
남짓되는 카시아마을에 흩어져있다.
5세기 초에 하리바라라는 신자가 기
증한 전장 6미터가 넘는 거대한 열
반상을 모시는 열반당의 뒤쪽 스투
파에서 이 땅이 니르바나 차이트라
는 취지의 각문이 새겨진 동판이 발
견되었고, 수대를 거친 한 쌍의 사라
수가 커다란 타원형의 앞을 달고 있
다.

마야부인당 주변에는 스투파 산재

석존이 목욕한 히라나바티강은 유유히 흐르고...

갖가지 스투파가 봉납되어 있다.
대탑 북쪽에는 석존이 성도직후의
7일동안, 스스로 깨달은 진리를 즐기
면서 산책을 했다고하는 전설의 장
소가 있다. 그곳에는 높이와 폭이 각
각 1미터 정도 되는, 콘크리트로 덮
인 들쭉대 18미터에 걸쳐 이어져
있고, 석존이 한걸음 한걸음을 내디
달때마다 피어났다고 하는 열여덟
개의 연꽃이 상징적으로 조각되어
있다.

또 현장은 석존이 미륵보살에 수
기를 준 흔적의 뒷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바, 이것이 곧 현재의
다메크 스투파인 것으로 추측된다.

기하학적 무늬나 새, 인물상 등이 꽃
무늬 속에 배치되어 있어서 디자인
이 매우 아름다운 조각으로 장식되
어있는데, 이 장식 부분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전혀 시대적인 거리감을 느
끼게 하지않는다.

현장은 녹야가람 승원의 장대함을
기록하고 있다. 그 옛날 번영을 누렸
던 이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스투파를 둘러 흐르고 있는 작
은 시내가 바로 석존이 최후에 목욕
을 했다고 전해지는 히라나바티강이
라고 한다. 또 파바에서 쿠쉬나가라
로 향하면서 병고에 시달린 석존이
물을 마시려고 했을 때, 마침 5백명
의 대상들이 건너간 직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는 카쿿타강으로 추정되는 작은 시
내가 그 더욱 동쪽 약 4킬로미터 지
점을 흐르고 있다.

초전법륜지 녹야원

녹야원은 현재 사르나트라고 불리
며 바라나시 북동쪽 약 7킬로미터

열반지 쿠쉬나가라



부처님의 대각을 기념하는 마하보디 대탑.

바로 잡습니다

- ▲ 지난해 5면 “불교의 모든 요소를 포함한 것이 불교”는 “불교의 모든 요소를 포함한 것이 밀교”로 바로 잡습니다.
- ▲ 1면 “선향각 전수”는 “선향각 전수”로 바로 잡습니다.

책방 여시아문

1년 365일 모두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오신 날 특별히 그 깨침의 말씀 더욱 가슴 깊이 새기고 싶습니다.

책방 여시아문이 권하는 부처님 오신 날 추천 도서 20선

- **부처님과 함께한 불교 공부**
불교의 의미는 무엇이며 불교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를 저자 개인의 의견보다는 경전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생활에서 직접 확인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무비 지음 / 신국판 393쪽 / 민족사 / 값 8,000원
- **불교의 세계**
천년의 세월을 침묵과 미소로 지켜 온 경주 남산 불부처들의 얼굴에서 순광한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재발견하며 다시 그 가운데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이근후 지음 / 신국판 256쪽 / 출판사 여시아문 / 값 6,500원
- **기도**
전체 대화상 일타스님이 자신의 도반, 제자 등 주변 사람들과 역대 고승들의 영험담을 통해 기도개념의 세계를 여는 수행 방법의 하나임을 입증하고 있다.
일타 지음 / 신국판 237쪽 / 효림 / 값 5,000원
- **달을 뜬 강물**
경허 스님의 제자로 만공, 혜월과 함께 경허의 세 달로 알려진 고승 수월 스님의 수행 여정을 담았다. 일하는 수행자, 수행하는 일인으로 살다 간 스님의 삶은 그 자체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온다.
김진태 지음 / 신국판 283쪽 / 해냄 / 값 6,500원
- **자기의 돌아 보는 마음**
아름다운 스님의 자경문(自警文)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으로 일타 스님 자신의 수행 체험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해설을 곁들였다. 부록으로 독송용 원문과 번역문도 함께 실었다.
일타 지음 / 신국판 285쪽 / 효림 / 값 5,000원
- **예쁜 마음을 자비로**
절을 찾는 모든 이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30여 장의 컬러 사진과 함께 실었다. 절에서 지킬 예절과 그 의미, 그리고 절에서 보고 듣고 만났던 되는 모든 것을 총망라하여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다.
권영한 지음 / 신국판 374쪽 / 전원문화사 / 값 15,000원
- **우물쭈문 떠난 개구미**
정토 포교원에서 개최한 불교 교양 강좌 시리즈 가운데 '창조적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범람 스님이 강의한 내용을 묶은 것. 자신을 특정 우물 안에 가두지 말고 넓은 바다의 실상을 그대로 보고 진정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범람 지음 / 신국판 215쪽 / 정토출판 / 값 4,800원
- **금강경 강의**
무비스님의 명쾌한 금강경 해설서. 불교라는 거대한 산맥을 앞두고 막막하게 하는 모든 이들에게 확실한 답안으로 제시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금강경이며 금강경을 잘 이해하면 인생과 삼라만상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고 한다.
무비 지음 / 신국판 284쪽 / 불광출판부 / 값 5,500원
- **각각의 불교의 신비**
일본 유심리학의 창시자로 어린이·여성에 관한 문제부터 현대사상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활동영역을 해 온 저자가 뉴 사이언스와 동양사상을 함께 논한 책.
이끼야마 사쓰코 지음 / 김인재 옮김 / 신국판 217쪽 / 고려원 / 값 4,000원
- **불교의 체계적 이해**
한국 불교사학연구에 한 획을 그은 고 익진 박사의 불교학 개론서. 대승의 주요 경전인 삼부경을 논리정확하게 하나의 큰보살로 연결시켜 통합적으로 '처음'하고 있어 불교 사상의 전체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훌륭한 지침서이다.
익진 지음 / 신국판 336쪽 / 새터 / 값 7,000원
- **인간 입양경**
한글 대장경 아람부 가운데 수행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경전을 범상의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생활불교 지침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생애, 절에서 지킬 예의, 알기 쉬운 불교 기초 상식, 설화 등을 총망라했다.
불교문화진흥회 엮음 / 신국판 257쪽 / 관음출판사 / 값 6,000원
- **두 손 무릎 꿇어 지어**
불교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생활불교 지침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생애, 절에서 지킬 예의, 알기 쉬운 불교 기초 상식, 설화 등을 총망라했다.
불교문화진흥회 엮음 / 신국판 257쪽 / 관음출판사 / 값 6,000원
- **저마다 깨친 인연이 있었네**
조계종 수선의 부회장이 김원환 씨가 한국·중국·일본의 90인 오도승을 모아 개친 인연법(인·이·비·설·신·외)로 엮은 책.
오도승은 인간적 관계를 극복한 대자유의 노래로 언어와 감각을 초월한 고승들의 수행의 경지를 느낄 수 있다.
김원환 지음 / 신국판 291쪽 / 우리출판사 / 값 6,000원
- **동관사상**
인도 중관불교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개별적인 입문서이자 전문 연구서. 중관불교는 유식불교와 밀교를 창출한 불교의 중심사상이다.
카지야마 유키치의 지음 / 윤종갑 옮김 / 신국판 377쪽 양장본 / 경서원 / 값 12,000원
- **선기거림(禪家龜鑑)**
서산대사 휴정의 대표적 저술로 한국 불교의 주류를 이룬 선(禪)의 사상과 방법을 간추린 일종의 선학 개론서이다. 출가정신의 회복이 불교중흥의 첫째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중희·심재열 강설 / 신국판 352쪽 / 보성출판사 / 값 9,000원
- **선의 세계**
선의 세계를 인식한 선승에서 규명, 비논리의 세계를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읽고 체험할 수 있다.
고형근 지음 / 신국판 양장본 각권 약 370쪽 / 운주사 / 값 13,000원
- **불교 김작업**
불교에 처음 입문한 이들이 불교의 모든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풀이하고 있는 책. 자의적 해설보다는 객관적 시각으로 경전과 이력, 고승들의 저술과 사상을 인용·서술하고 있다.
곽철한 지음 / 4x6배판 양장본 364쪽 / 시공사 / 값 18,000원
- **팔미경전이 들려주는 그마야 불타**
팔미어로 된 원시불교 경전 5나카야 가운데서 9개의 경전을 뽑아 고마야 불타의 수기, 탄생, 성도, 전법, 열반까지 하나로 이어서 볼 수 있게 엮었다. 최봉수 옮김 / 신국판 336쪽 / 불광출판부 / 값 6,000원
- **인간 불타**
부처님을 숭배나 학문 탐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상적 삶을 제시하는 하나의 모델로서 부처님의 삶을 조명하였다.
법문 강의·박수일 엮음 / 신국판 463쪽 / 정토출판 / 값 8,200원
-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이승 윤회의 원형이 된 불전 문학의 핵미(자카타) 가운데 비교적 흥미 있고 교훈적인 것 32가지를 가려 뽑아 엮은 책.
신지우 엮음 / 신국판 296쪽 / 불교시대사 / 값 6,000원

책방 여시아문 초고속 인터넷 무료 검색 서비스 제공! (부다피와 연계)

- 책방 여시아문에 오시면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여시아문 고객센터 차원에서 초고속 56 K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몸만 오세요)
- 특별회원을 위해 전자우편 주소도 할당해 드립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시기 위한 모든 소프트웨어 및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 인도 불교 티벳불교 일본 불교 등 전 세계 불교 관련 정보를 검색, 프린트해 가실 수 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전화: 737-0695 / 팩스: 737-0696

연등회 불거리 "풍성"

불교방송등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 마련

특집방송안내

불기 254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방송사인 불교방송과 불교텔레비전을 비롯한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서울방송 등은 다양한 내용의 부처님오신날 기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BBS

특집좌담 「부처님께서 오신 뜻은」(24일 오전 11시55분)=부처님 탄생 당시 인도의 시대적 배경과 부처님의 삶을 통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그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모색해 본다.
국악교성곡 「부모은중송」(24일 저녁 8시55분)=전통적인 가치가 희박해진 현대사회에서 효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현대화된 국악교성곡을 소개한다.
다큐멘터리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들」(24일 오후 5시10분)자비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감동적인 삶을 통해 이 시대 불교가 진정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불교TV

고려대장경 1, 2부(24일 12시30분, 25일 12시50분)=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팔만대장경의 신비를 재조명, 문화유산적 가치와 신앙적 측면의 가치를 새롭게 부각시킨다.

영상포럼 「내원의 하루」(25일 오전 11시10분)=한국의 대표적인 비구니 사찰인 내원사의 아름다움과 그곳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생활을 무언의 메시지로 전달한다.

불탄절 특집법문(24일 오전 10시 50분)=법정스님과 이계진씨의 대담 형식으로 '왜 다시 무소유인가'를 주제로 맑고 향기로운 삶을 위한 제언을 중계한다.

KBS 1

중계방송 「불기2540년 봉축법요식 -조계사」(24일 오전 10시)=조계

사에서 봉축법요식을 생방송으로 중계한다.

부처님오신날 특집 「출가」(24일 오전 11시50분) 봉축음악회(24일 12시30분) 부처님오신날 특선영화 「소림사 달마대사」(24일 오후 1시 50분)

MBC

김희애가 만난 월하중정=(23일 오후 11시) 경남 통도사에 주석하고 있는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을 텔레트 김희애씨가 만나 부처님 오신 뜻을 듣는다.

특집다큐멘터리 「관음성지를 찾아서」(24일 오전 11시) 특선영화 「만다라」(24일 12시)

SBS

특집 다큐멘터리 「남방불교의 정수 미얀마」(24일 오전 11시) 특집 다큐멘터리 「소림사」(24일 오후 4시15분)

藝人을 찾아

만다라의 현대화 시도

개인전 10여회 통해 독창적 예술세계 구축



이석조 화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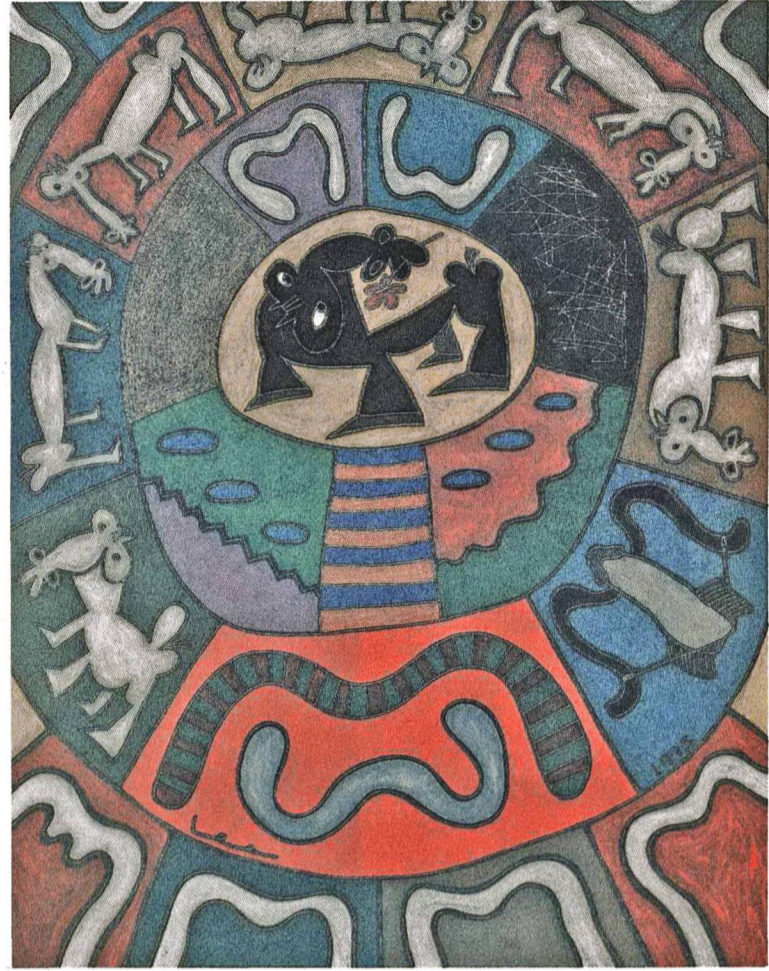
이석조화백(51)은 우리나라에서 만다라를 그리는 몇명 안되는 화가 가운데 한명이다. 그러나 그의 작업은 다른 이들과는 또 다르다. 기존의 만다라를 재해석해 이석조 개인의 창작세계를 구축한 것이다.

“만다라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주를 보여주고 부처의 세계를 보여주는 등 삼라만상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그림이 만다라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저는 만다라의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저 개인의 만다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미술평론가 신항섭씨는 그의 만다라를 통해 ‘아름다움도 추함도 부끄러움도 자랑스러움도 구별되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로 융합되는 분별없는 세계를 보여준다고 했다. 또 ‘해학과 풍자, 은유, 상징, 우화를 포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평했다.

기자가 만난 이화백은 헌을 넘은 사람으로는 여겨지지않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머리 카락을 모두 넘겨 뒤에서 묶은 머리



작품 「서울 르네상스」, 95년작.

스타일이 아니라라도 그는 도무지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아이와 같은 천진함을 갖고 있었다. 그의 이러한 순수성이 그림에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본다.

“나이를 의식할 필요는 없어요 우 주적인 시각으로 보면 태어남도 늙 음도 없으니까. 다만 우리가 나이를 의식해 체면을 차리기 때문에 어린

이 있고 아이가 있는 것일 뿐입니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만큼이나 그는 자유롭게 살아왔다.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해 노력한 삶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 어머니가 어느 절의 화주로 있었던 인연으로 절에서 어린시절을 보내야 했다. 일찍 부터 불교의 율타리 안에 있었던 셈

이다.그가 국민학교 3학년때 그린 그림은 문공부장관상을 받아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이처럼 일찍 재능을 보였지만 본격적으로 그림에 매달린 것은 28살 때이다. 그전에 그는 전국의 절을 돌아다니며 구도에 목말라 했다. 자유의지가 강했던 그다운 일이었다. 그러던중 진정한 자유는 그림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또 떠돌며 얻으려 애썼던 진리의 세계가 만다라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오랜시간을 들여 깨달은 진리도 그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영무세가 사람의 말을 흉내내듯 기존의 만다라를 모방하는 일에 실증을 느꼈던 것이다. 마침내 1980년 그는 혈혈단신 유럽으로 떠난다.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시도였던 것이다. 그 3년 동안 그는 유럽의 미술관들을 섭렵하며 자신의 색깔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온 그는 서울공간화랑개인전을 시작으로 10여차례의 개인전을 열어 미술평론가들로부터 이석조만의 만다라의 세계를 구축했다는 찬사를 받는다.

현재 그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2동 210-69 남송하우스 2층에 자리잡은 개인아틀리에에서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그리게 되는 그림들도 여전히 만다라를 바탕으로한 개성화라고.

“만다라는 세계미술의 정수입니다. 만다라의 구도를 기본으로 해 유희 등 판권적인 것을 현실적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02)796-1567

(金銀珠 기자)

총지광장

총지광장은 교도님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난입니다. 불공 행사 전 시 이전 모집 강좌 결혼 등 어떤 소식이라도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본란에 실어드립니다. FAX 552-1082

수련대회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여름수련회가 오는7월말경 수련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번 수련회는 예년과 달리 레크리에이션시간을 많이 넣어 즐겁고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어준다고 수련을 통해 신심을 돈독히 프로그램 기획한다.

따라지의 향연

6월16일까지 연강홀

서민들의 풍자와 해학이 풍부하게 살아있는 대형 정통 희극으로 작품성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작품.

16세기 이후 이탈리아에서 태동한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진수로 작가인 스킴페타 특유의 재치와 기지가

넘치는 것이 특징. 시종일관 유쾌한 웃음 속에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66년 극단 「자유」의 창립공연으로 시작, 30년동안 「자유」의 대표적 레퍼토리로 명성을 얻었다.

중견연기자들의 농익은 연기 솜씨도 볼거리. 김금지 박인환 박용 박정사 권병길 채진희 등 그동안 이 공연을 함께해온 극단 「자유」의 배우들이 다시 모였다.

한편 극단의 대표이자 무대미술가인 이병복(한국무대미술가협회장)과 연출가 김정옥(중앙대 예술대학원장)교수가 30년전 그대로 무대미술-

연출을 맡아 눈길을 모은다. 6월16일까지 연강홀. 화~목 오후 7시 30분, 금 오후 4시~7시, 토일 오후 3시~6시. 708-5001~4.

결혼

○지난 4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경북 흥해 선리사 주교 보원님의 차남 이원익의 결혼식이 포함 대왕에 식장에서 있었다.

○지난 5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본종 통리원 재단사무국의 윤승효교무와 재무부 신다자교무의 결혼식이 진주 전원 예식장에서 있었다.

장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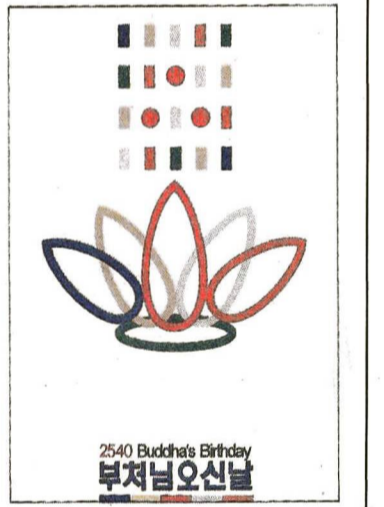
○지난 4월 27일 청주 혜정사 주교 수증원 전수의 각자이신 조항운 씨가 열반하였다. 향년 61세.



봉축 휘장·캐릭터 제작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를 상징하는 휘장과 캐릭터가 확정됐다.

봉축위원회(위원장·월주)는 연꽃을 중심으로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는 5개의 꽃잎과 1개의 꽃받침 위에 꽃비를 아로새긴 휘장과 청소년의 해에 맞춰 일반대중에 친숙한 모습의 아기부처님 캐릭터를 제작했다.



태장계 만다라의 구조와 사상 -중대 팔엽원



태장계만다라는 중앙의 중심과 사방에 5불과 4보살의 중대팔엽원과 외호(外護)의 11원(院)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은 바로 태장계만다라의 중심이며 불(佛)의 깨달음의 자리이다. 중대팔엽원은 본존인 대일여래와 그 속성을 분담하는 4여래와 그를 보좌하는 4보살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4여래와 4보살을 8엽원의 연관상에 배치하고 있어 이를 8엽원이라고 한다. 중대팔엽원의 사상은 다음과 같다.

- 중앙- 대일여래- 방편구족(깨달음의 응용)
- 동방- 보담여래- 발심(깨달음에의 출발)
- 남방- 개부화왕여래- 수행(깨달음에의 노력)
- 서방- 무량수여래- 보리(깨달음의 실감)
- 북방- 천고뢰음여래- 열반(깨달음의 체득)



2540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봉축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불교방송은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함으로써

자비, 평등, 해탈을 바탕으로한

인간 존엄성의 구현과 사회의 정토했을 추구합니다.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대중화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불교방송은

정법구현을 통한 불국정토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불교방송에 귀 기울이면

자비의 법음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일궈갈 것입니다.

■ 불교방송 전국방송망 확장에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바랍니다.

불교부선방송과 불교광주방송의 개국에 이어 대구와 청주에서도 불교방송이 곧 개국합니다. 불교대구방송과 불교청주방송이 전국 불자님들의 성원하에 어렵게 설립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